

1577年 鐵原 深源寺 刊行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의 저본과 특징

朴哲珉*

I. 서론	저본과 특징
II. 심원사 간행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의 서지사항	IV. 심원사 간행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의 의의
III. 심원사 간행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의	V.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1577년(선조 10) 鐵原 深源寺에서 간행한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이하 『恩重經諺解』)의 저본과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恩重經諺解』는 그간 42종의 판본이 알려졌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총 44종의 판본이 확인되었다. 새로 추가한 2종의 판본 중 철원 심원사 간행의 『恩重經諺解』(이하 심원사본)는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이 현전 유일본으로 확인된다.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 심원사본은 제12~15장, 제17~20장이 결락되어 있으나, 연화질, 간기 등이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어, 간행 시기와 장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심원사본을 살펴보았을 때, 해당 문헌은 조선시대 강원도에서 간행된 『恩重經諺解』의 한 판본이며, 현재까지 확인되는 여러 판본 중 강원도에서 간행된 가장 오래된 판본이기도 하다. 심원사본의 간기 말미에는 留板이라고 되어 있으나, 간행에 참여한 인물, 심원사본의 간행이 이루어지기 3년 앞서 『묘법연화경』을 심원사에서 간행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보아 심원사본은 심원사에서 간행이 이루어졌으리라 여겨진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심원사본은 본문 및 도상의 특징으로 보아 1553년 간행된 華藏寺本을 저본으로 삼았으리라 여겨지며, 종성의 ‘ㅇ’을 바로잡은 흔적이 특징적이다. 심원사에서 화장사본을 저본으로 삼은 까닭은 지리적 특징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심원사본의 소개 외에도 전주본과 홍복사본의 새 소장처를 소개하였으며, 『恩重經諺解』 판본 중 1583년 槐山 小馬寺 간본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판본을 정리하였다.

주제어 : 恩重經諺解, 저본, 심원사, 寺刹板, 조선 전기

I. 서론

이 글은 그간 알려지지 않은 1577年(선조 10) 鐵原 深源寺¹⁾ 刊行의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²⁾를 소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恩重經』은 隋唐代 중국에서 성립된 僞經으로 알려져 있으며,³⁾ 한국에는 엔닌(圓仁, 794~864)의 기록과 1022년(고려 현종 13) 玄化寺碑의 陰記를 보아 統一新羅 후반~羅末麗初 무렵 전래되었으리라 여겨진다.⁴⁾

『恩重經』은 조선시대에 들어 수십 차례 간행이 이루어진다. 특히 訓民正音(이하 한글)의 창제 이후 언해본이 출현하는데, 언해본은 1545년(인종 원년) 全州의 吳應星이 간행한 全州本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⁵⁾ 해당 『恩重經諺解』는 이후 일제강점기인 1925년까지 전국적으로 간행이 이루어지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異本만 하여도 42종에 달한다.⁶⁾ 이들은 대개 오음성 발문이 수록된 전주본 계통이다. 이외에도 국어학적

1) 심원사는 深源寺, 深原寺라고 표기된다. 본고에서는 『太宗實錄』 1402년(태종 2) 10월 27일 기사와 柳夢寅(1559~1623)의 『於于集』, 鄭斗卿(1597~1673)의 『東溟集』, 20세기 초 편찬된 『鐵原郡邑誌』 등의 기록과 현재 사찰에서 사용되는 명칭을 고려하여 深源寺로 통일하였다. 문집은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에서 제공되는 원문을, 음지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 소장의 奎10964를 활용하였다.

2) 이하 본문에서는 한문본을 恩重經, 언해본은 恩重經諺解로 약칭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3) 조순향, 「韓國版父母恩重經研究」,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76; 윤진원, 「朝鮮時代 父母恩重經 開版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8; 김자현, 「『父母恩重經』의 변천과 圖像의 형성과정 연구」, 『불교미술사학』 18, 불교미술사학회, 2014 등 참조.

4) 조순향(1976); 윤진원(1998); 송일기, 「『父母恩重經』 韓·中 板本考」, 『한중인문학연구』 5, 중한인문과학연구회, 2000; 송일기, 「鷄龍山 岬寺 所藏의 〈父母恩重經諺解〉 雙溪寺 經板」, 『불교문화연구』 6, 한국불교문화학회, 2005 등.

5) 해당 판본에 대해서는 송일기, 「佛說大報父母恩重經: 諺解의 初譯本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22, 한국서지학회, 2001을 참조할 수 있으며, 본문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주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1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6) 『恩重經諺解』의 전반적인 판본은 송일기·박민희, 「새로 발견된 湖南板〈父母恩重經諺解〉 4종의 書誌的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0에서 정리되었다. 당시 수집된 판본은 총 40종이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11)에서도 송일기·박민희(2010)를 따라 계통과 판본을 제시하였다. 이후 정은영, 「보현사판 『부모은중경언해』의 서지 및 국어학적 특징」, 『민족문화논총』 7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0에서 1710년 무렵 간행된 平安道 龍岡 華藏寺 刊本을, 박철민, 「1766년 咸鏡北道 會寧府 萬景菴 刊行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에 대하여」,

관점에서 異本 간의 원문 비교, 관계 정립, 특징 등을 살펴본 최송이(2003), 이호권(2005), 이경희(2006) 등의 연구와 圖像을 중심으로 살펴본 박도화(2005), 김자현(2014), 書體를 살펴본 최영희(2017)⁷⁾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⁸⁾들을 살펴보았을 때, 1577년 鐵原의 深源寺에서 간행된 판본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판본이다. 해당 판본을 합하면 기존의 42종을 더하여 44종⁹⁾이 된다. 深源寺 刊本은 현재 成均館大學校 尊經閣 소장본(청구기호: 稀 C04-0082b v.1)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소장의 심원사 간본(이하 심원사본)을 통해 1577년 간행된 심원사본을 소개하도록 한다.

II. 심원사 간행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의 서지사향

II 장에서는 심원사본의 서지사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¹⁰⁾ 현재 전하는 해당 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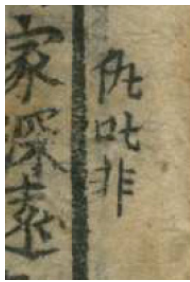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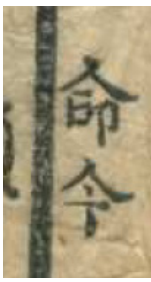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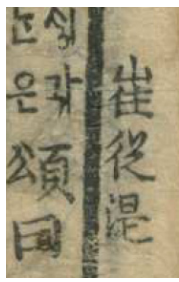
『서지학연구』 83, 한국서지학회, 2020에서 1766년 咸鏡北道 會寧 萬景菴 刊本을 추가로 발굴하여 현재 총 42종의 언해본이 알려져 있다.

- 7) 최송이, 「『부모은중경』의 언해본 비교 고찰」,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3; 박도화, 「諺解本〈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畫의 圖像의 淵源과 意義」, 『불교문화연구』 6, 한국불교문화학회, 2005; 이호권, 「父母恩重經諺解의 異本에 대한 研究」,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4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2005; 이경희, 「〈父母恩重經諺解〉 異本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06; 최영희, 「조선시대 부모은중경 한글판본 서체의 조형적 특징 연구」, 『동양예술』 34, 한국동양예술학회, 2017.
- 8) 앞서 제시한 연구 외에 본고에서 『은중경언해』 판본을 조사하기 위해 손성필, 「16世紀 朝鮮의 佛書 刊行」,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7; 이화숙, 「조선시대 간인본 국역불서의 서지적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11; 최경훈, 「강원도 지역 사찰 간행 불서에 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84, 한국서지학회, 2020a; 최경훈, 「조선시대 강원도 지역의 목판 인쇄 문화 연구」, 『강원사학』 34, 강원사학회, 2020b; 김기엽, 「판본의 異文을 통해 본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문헌학적 특징」, 『한문학논집』 58, 근역한문학회, 2021을 참조하였다.
- 9) 기존 연구에서는 2011년 6월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1583년(선조 16) 槐山의 鳳鶴山에 소재한 小馬寺本이 누락되었다. 본고에서 소개할 심원사본과 소마사본을 합하여 본문에서는 44종으로 제시한 것이다.
- 10) 필자는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사이트(<https://east.skku.edu>)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심원사본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본고에서 활용한 심원사본의 모든 이미지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인용한 것이다.

은 不分卷 1冊으로, ‘父母恩重經’이라 적힌 表題는 題簽되어 있다. 표제 하단에는 ‘單’이라 기재되어 있다. 흔히 한국에서 볼 수 있는 五針眼訂法이 아니라 六針眼訂法으로 裝幀된 線裝本이다. 표지의 우측 상단에는 ‘書’라는 목서가 존재한다. 책의 크기는 세로 27.5cm, 가로 17.8cm이다.

卷首題는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이며, 하단에는 夾註로 ‘부모의 은 갚는 경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匡郭은 四周單邊이며, 半郭의 크기는 세로 20.2cm, 가로 14.2cm이다. 본문은 10行18字로 구성되어 있다. 界線의 경우 제1장부터 제4장까지 확인되나, 5장부터는 확인되지 않는다. 版心의 版口는 上下大黑口가 존재하며,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版心題는 ‘恩’이며, 하단에는 張次가 위치해 있다.

해당 문헌은 성균관대학교 소장인을 제외하면 별도의 인문이 존재하지 않으며, 欄外 施主秩이 있다.¹¹⁾ 제1장의 난외 시주질은 陰刻으로 새겨진 것인데, 인출 상태가 불량하여 명확하지 않고, 그 하단에는 五라는 목서와 着名이 기입되어 있다. 제2장부터는 난외 시주질은 陽刻으로 새겨져 있다.

사진				
判讀	■非	仇叱非	命今	崔從湜
張次	제1장	제2장	제9장	제11장

〈그림 1〉 심원사본 欄外 施主秩의 예

11) 欄外에 새겨진 이름을 刻手의 인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뒤에 소개할 緣化秩에서 각수 1인이 별도로 확인되며, 연화질에 기재된 각수의 인명이 난외에는 확인되지 않는 점, 심원사판 『은중경언해』의 난외에 새겨진 인명이 김상호, 「朝鮮朝 寺刹板 刻手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0과 같은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보아 이는 시주한 인물들의 이름이라 여겨진다.

말미에는 刊記와 시주자 등이 기재된 緣化秩이 위치하고 있다. 刊記는 萬曆五年丁丑六月日, 江原道鐵原地寶蓋山深原寺留板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刊字元信이라는 문구가 있어 각수의 인명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緣化秩의 일부가 缺落되어 참여한 전체 시주자는 확인할 수 없다. 아래는 심원사본의 권수면과 간기가 확인되는 연화질 부분이다.



〈그림 2〉 심원사본의 권수면과 연화질

이상 살펴본 심원사본은 본래 緣化秩을 포함하여 전체 27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존경각 소장본은 본문 일부가 落張되어 있다. 누락된 張次는 제12~15장, 제17~20장이며, 앞서 언급한 연화질의 상태와 같이 제23장부터는 판심 중간 부분부터 본문 일부가 缺落되어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이다. 이상 소개한 심원사본의 서지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1577년 鐵原 深源寺 간행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의 서지사항

서명	간행처	간행시기	판식	소장처
佛說大報父母恩重經	江原道 鐵原 深源寺	1577년 (선조 10)	不分卷 1冊：木板本，四周單邊，有界(無界混入)，10行 18字，半郭 20.2×14.2cm，上下大黑口，上下內向黑魚尾；註雙行，크기 27.5×17.8cm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주기사항	表題: 父母恩重經 板心題: 恩 刊記: 萬曆五年丁丑(1577, 선조 10)六月日, 江原道鐵原地寶蓋山深源寺留板 *제12~15장, 제17~20장 落張.			

심원사본의 간기에는 深源寺留板이라는 표현이 있어, 실제 간행처는 다를 여지가 있다. 정은영(2020)에서 소개한 평안도 용강 화장사본 또한 간기가 龍岡華藏刊, 移鎮香山普賢寺라는 문구가 있어 책판 보관처와 간행처가 다른 점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심원사본은 어떠할까?

심원사본의 간기는 年月日+地域名+寺刹名+留板의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용강 화장사본과 달리 간행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 차후 소개하겠지만 심원사는 1574년(선조 7) 『妙法蓮華經』을 이미 간행한 바 있다.¹²⁾ 즉, 간행 여력이 충분한 사찰이었으리라 여겨진다.

이외에도 심원사본 『묘법연화경』 난외 시주질과 연화질을 살펴보면 심원사본 『은중경언해』에서 확인되는 인물이 일부 발견되는데,¹³⁾ 한자가 동일한 인물은 每邑德, 今伊, 崔千石, 竹密이며, 이름이 유사한 인물로는 심원사본 『은중경언해』의 金龍伊(『묘법연화경』에서는 金龍), 『은중경언해』의 口者叱同(『묘법연화경』에서는 金者叱同)이 있다. 특히 竹密은 『묘법연화경』에서 幹善道人으로, 『은중경언해』에서는 化主로 나오는데, 간행 당시 化主나 幹善道人和 같은 특정한 수식어가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당시 심원사의 책 간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으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은중경언해』는 간기의 ‘留板’이라는 표현을 통해 다른 곳에서 간행하였을

12) 해당 『묘법연화경』의 간기는 ‘萬曆二年甲戌九月日, 江原道鐵原地寶蓋山深源寺開板’으로 『은중경언해』와 달리 ‘留板’이 아닌 ‘開板’으로 명시되어 있다.

13) 현재 심원사본 『은중경언해』의 연화질은 일부 파손이 있어 전체 명단을 확인할 수 없다.

여지도 있으나, 이미 책을 간행해본 이력이 있는 점과 동일한 시주자가 확인되는 점, 『은증경언해』의 張數가 많지 않아 여러 사찰에서 나누어 간행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점 등을 보아, 심원사에서 책판의 간행과 보관을 함께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논지를 전제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간행처인 深源寺는 어떠한 사찰인가? 深源寺¹⁴⁾는 647년(신라 진덕여왕 원년) 靈源이 創建한 사찰로, 처음에는 興林寺라 불렸다. 이후 859년(신라 헌안왕 3)에 梵日에 의해 重創되고, 千佛을 조성하여 봉안하였다고 한다. 이후 3차례 더 重創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深源寺의 歷代 重創 시기와 사유

증창 시기	증창 사유	비고
1396년(태조 5)	1393년(태조 2) 사찰에 화재 발생.	深源寺로 改稱.
1592년(선조 28)	임진왜란으로 사찰 전소.	
1909년 이후	1907년(융희 원년) 의병장 許薦의 의병부대를 공격하기 위해 일본군과 김화수비대가 시행한 급습 공격으로 인해 사찰 전소.	
1955년	1950년 한국전쟁으로 전소됨. *원래 寺址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자, 철원의 동송읍으로 이전함.	현 위치: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2000년대 이후	원래 寺址의 발굴 조사와 복원이 이루어짐.	현 위치: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표 2〉와 같이 심원사는 여러 차례 전소가 되었다가 증창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철원의 심원사는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은증경언해』보다 3년 앞선 1574년(선조 7) 『妙法蓮華經』을 간행한 바 있다. 해당 판본은 현재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손성필(2007), 최경훈(2020a·b) 등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심원사본의 책판은 심원사의 『은증경언해』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되었다는 점, 사찰이 임진왜

14) 본고에서는 1942년 간행된 『楡岾寺本末寺誌』를 저본으로 영인한 한국학문헌연구소, 『乾鳳寺本末事蹟·楡岾寺本末寺誌』, 아세아문화사, 1977과 디지털철원문화대전, 두산백과 등을 활용하여 심원사의 연혁을 정리하였다.

란 당시 전소되었다는 점, 존경각 소장본 외에는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임진왜란 당시 사찰이 전소되면서 같이 소실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심원사는 한국전쟁 이후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 2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래의 위치는 현재의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에 해당된다. 간기에서는 철원에 소속되었던 것이 명확한 심원사는 1942년 간행된 『榆岾寺本末寺誌』의 「深源寺誌」에서도 행정구역이 철원으로 되어 있어, 현재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에 소재한 심원사를 다른 사찰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보개산이라는 산의 이름과 신서면이 1963년부터 철원군에서 연천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는 점¹⁵⁾을 감안하면 심원사본의 간기에 기재된 심원사는 연천군에 소재했던 심원사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Ⅲ. 심원사 간행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의 저본과 특징

그렇다면 심원사에서 간행된 심원사본은 수많은 『은중경언해』의 판본 중 어떠한 계통이며, 저본은 무엇일까? 또, 저본을 특정할 수 있다면, 저본과 어떠한 점이 다를까? Ⅲ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송일기·박민희(2010)에서 정리한 계통에 따르면, 『은중경언해』는 1441년 전라도 고산 화암사에서 간행된 판본을 저본으로 간행되었으리라 여겨지며,¹⁶⁾ 크게 4가지 계통으로 나뉘는 것을 소개하였다. 여기서 주류를 이루는 것은 전주본 계통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이본 42종 중 31종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외에는 조원암본, 금산사본, 기타 한글본 등으로 나뉜다. 박철민(2020:138~139)에서 제시한 각 계통별 권수제의 특징¹⁷⁾을 보아 심원사본은 전주본 계통의 판본임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15) 연천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연혁(<https://www.yeoncheon.go.kr/www/contents.do?key=3409>)을 살펴보면, 1963년 법률 제1178호에 의거하여 파주군의 늘목리, 삼화리와 철원군의 신서면이 연천군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 해당 부분은 『은중경언해』에 수록된 圖像을 참조할 수 있다. 관련 연구는 이태호, 「朝鮮時代木版本『父母恩重經』의 變相圖 板畫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19, 한국서지학회, 2000; 박도화(2005)를 참조할 수 있다.

17) 해당 연구에서 언급된 바에 의하면, 전주본과 금산사본 계통은 每面이 10行이며, 조원암본 계통은 11행이다. 전주본과 금산사본 계통은 권수제를 풀이한 註釋이 雙行인지, 單行인지로 구분할 수

전주본 계통은 심원사본을 포함하여 32종이 된다. 이외에도 다른 계통의 판본들이 17세기 후반, 18세기 초중반 무렵 처음 간행되는 점을 보아 16세기 중후반에 간행된 심원사본은 전주본 계통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전주본 계통 중 심원사본의 저본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까지 알려진 전주본 계통의 『은증경언해』 중 심원사본이 간행된 1577년(선조 10)보다 앞선 판본은 7종이 존재한다.¹⁸⁾ 간행시기를 감안하면 1545년 全州本, 1553년 華藏寺本, 1563년 神心寺本, 1563년 松廣寺本, 1564년 嘔葉寺本, 1567년 雙溪寺本, 1573년 興福寺本이 심원사본의 저본이 될 가능성이 있는 판본이다.

7종의 이본 중¹⁹⁾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인 全州本은 필자가 새로운 소장처를 확인하였으므로, 여기서 간략히 소개하도록 한다. 전주본은 그간 전체 이미지가 공개되지 못하여,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역주본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²⁰⁾ 전주본의

있다. 심원사본은 每面이 10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수제 하단의 註釋이 雙行이므로, 전주본 계통의 특징과 부합된다.

18) 송일기·박민희, 앞의 2010 논문, 125면 참조.

19) 1545년 全州本은 본문에서 제시하는 뉴욕공공도서관 사이트, 1553년 華藏寺本, 1564년 嘔葉寺本은 한국학자료센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본 도쿄대학 오구라문고본, 1563년 松廣寺本, 1567년 雙溪寺本은 규장각 소장본, 1563년 神心寺本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11) 영인본을 참조하였다. 1573년 興福寺本의 경우 국립청주박물관 소장본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전주 金仙庵 소장본의 일부 이미지를 문화재청 사이트와 2021년 6월 23일 BTN뉴스(<https://m.btnnews.tv>) 영상(최종 접속일: 2022년 5월 16일)을 통해 확인하였다.

20) 필자가 확인하였을 때, 화봉문고 소장 전주본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11); 송일기·유재균, 『韓國本『父母恩重經:諺解·한글』의 板本 및 한글서체에 관한 研究』, 『도서관』 55(2)(통권 355), 국립중앙도서관, 2000; 박도화, 「16·17세기 경전 간행의 양상과 변상도의 특징」, 『한국불교사연구』 14, 한국불교사연구소, 2018 등의 일부 연구에 수록된 이미지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11)의 경우 역주의 저본을 화봉문고 소장 전주본으로 삼았으나, 사정이 있어 영인의 저본은 洗心寺 소장 冊板으로 인출한 『恩重經諺解』이었다. 이 중 洗心寺 冊板에서 없는 제2장, 제12장은 전주본을 저본으로 영인하였다고 밝혀져 있다. 송일기·유재균(2000)에서는 부록으로 전주본의 제1장 a면, 제6장 b면, 제7장 a면, 제14장 b면, 제26장 b면과 跋文이 수록되어 있으며, 박도화(2018), 225면에서 제18장 a면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주본 전체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남경란, 「세심사판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의 국어학적 특징과 의의」, 『인문과학연구』 37,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각주 11번과 같이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11)에 제시된 원문이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11)에 제시된 원문도 그즈믄을 그즈믄로 입력한 점 등을 보아 일부 오기가 있으므로 관련 연구자들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소장처는 화봉문고만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화봉문고 외에도 미국 뉴욕공공도서관²¹⁾에 전래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판본이 화봉문고 소장본과 동일한 1545년 오응성 발문이 말미에 수록된 전주본²²⁾임을 확인하였다.²³⁾ 이외에도 홍복사본은 기존에 알려져 지정된 문화재 외에 청주박물관 소장본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심원사본의 원문을 입력한 뒤, 이호권(2005)에서 각 이본별 특징으로 거론한 부분을 대조한 결과 심원사본은 1553년 華藏寺本과 공통점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호권(2005)에서 거론된 각 이본의 차이점 중 언해문의 특징 몇 가지와 필자가 확인한 도상의 특징 일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심원사본 이전 간행된 『은증경언해』의 비교 예²⁴⁾

판본	언해문						圖像	
	세존하 (1b)	음식 (5b)	명늑니 (5b)	싱장 (5b)	은니라 (7b)	간당의 (7b)	恩圖 집기둥이 겹다.	地圖 성문 위 사람 존재
전주본	세존히	음식	명늑니	싱장	은니리	간당의	×	○
화장사본	세존하	오식	명늑니	싱장	은니라	간당의	×	×
신심사본	세존하	오식	명늑니	싱장	은니라	간당의	△	×
송광사본	세존하	오식	명늑니	싱장	은니□	간당의	○	×
패엽사본	(필사) 세존은	음식	명늑니	싱장	은니리	간당의	×	○
쌍계사본	세존하	음식	명늑니	싱정	은니라	간당의	×	○
홍복사본	세존히	음식	명늑니	싱장	은니리	간당의	×	○
심원사본	세존하	오식	명늑니	싱장	은니라	간당의	×	×

21) 해당 이미지는 <https://digitalcollections.nypl.org/>(최종 접속일: 2022년 5월 16일)에서 살펴볼 수 있다. 뉴욕공공도서관 소장 전주본은 'Fubo onju kyo'라 제목되어 있다. 관련 연구자는 자료를 찾아볼 때 제목을 주의해서 검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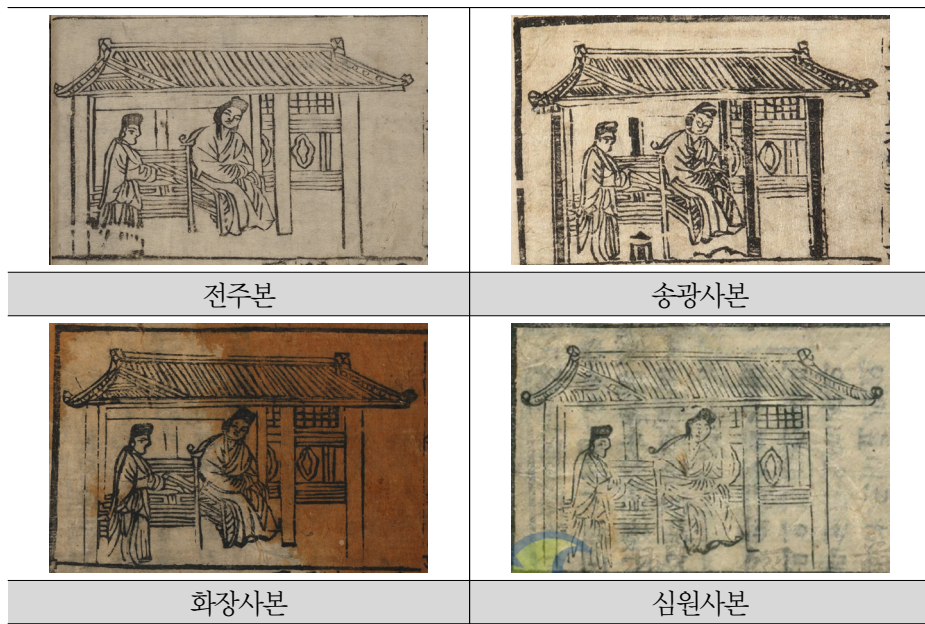
22) 뉴욕공공도서관 소장 전주본의 경우 제1장과 제15장에 파손이 있어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우나, 나머지 부분은 모두 온전하다.

23) 위 각주에서 언급한 선행연구 속의 화봉문고 書影을 뉴욕공공도서관 소장 전주본과 대조하였을 때, 동일한 책판으로 인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4) □은 판독이 불가능한 부분을 의미하며, 홍복사본의 경우 국립청주박물관 소장본을 활용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전주본의 원문은 필자가 뉴욕공공도서관 소장본과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11)를 대조하여 구축한 것이다.

〈표 3〉을 살펴보면 16세기 간행된 『은중경언해』 이본의 언해문은 1b에서 ‘세존하’인지, ‘세존히’인지로 구분되거나, 5b의 ‘음식’이 ‘오식’으로 나타나지는 않는지, 종성의 ‘ㅇ’이 표시되었는지 아닌지, 종결어미로 ‘-니라’가 ‘-니리’로 표기되는지 아닌지 등의 특징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圖像 중 어머니의 恩惠를 설명한 圖像(이하 恩圖)에서 나타나는 집기둥이 검은지 아닌지, 말미에 수록된 地獄圖에서 성문 위에 말과 함께 사람이 표현되었는지 여부 등으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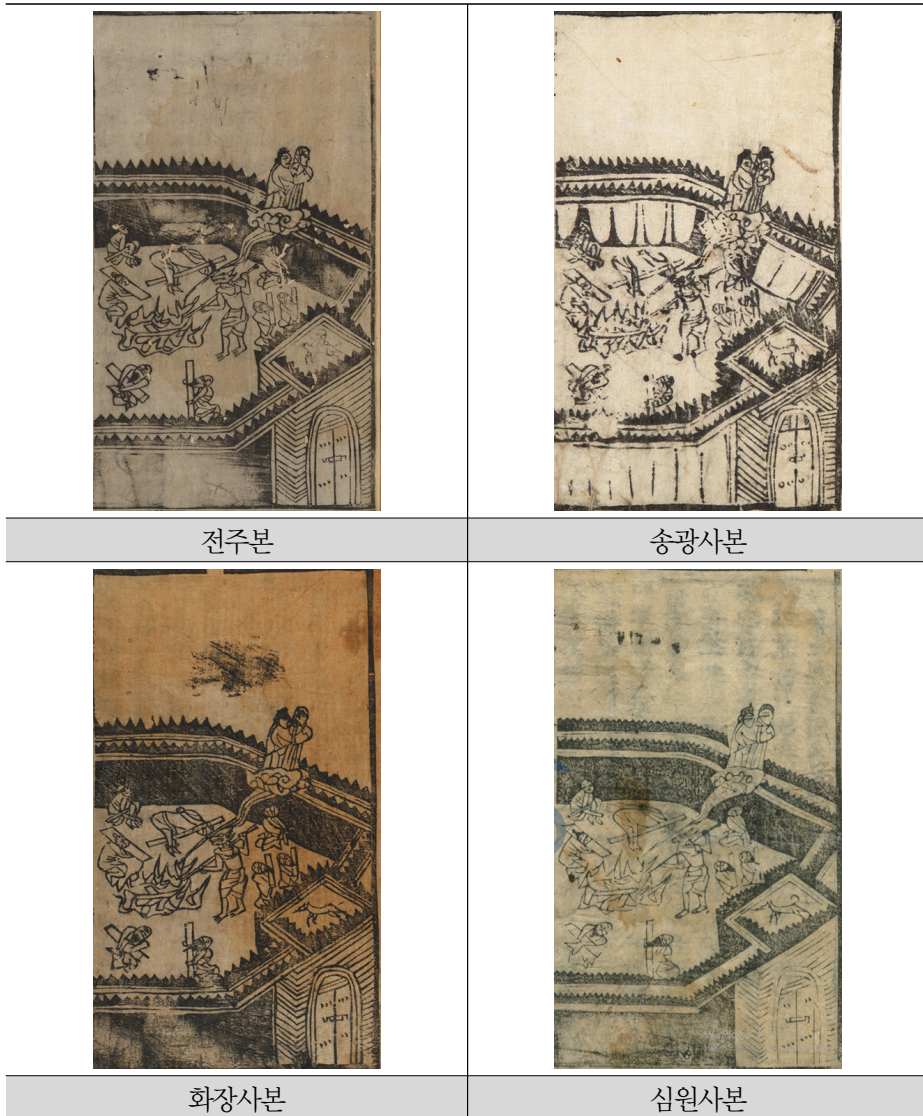
특히 심원사본에서 ‘음식’을 ‘오식’으로 오각한 것은 화장사본, 신심사본, 송광사본과 같은 현상이며, 도상의 집기둥이 검지 않은 것은, 전주본, 화장사본, 패엽사본, 쌍계사본과 동일한 현상이다. 여기서 ‘오식’, 집기둥이 검지 않은 것 모두가 동일한 것은 화장사본이 유일하므로, 심원사본의 저본은 화장사본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 3〉 이본별 도상의 기둥 색 차이 예시²⁵⁾

25) 전주본은 뉴욕공공도서관, 송광사본은 규장각, 화장사본은 한국학자료센터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이미지를 인용한 것이다. 지옥도의 이미지도 동일하다.

앞에서 거론한 부분 외에도 『은중경언해』 말미에 수록된 地獄圖에서도 판본의 저본을 유추할 수 있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림 4〉 이본별 지옥도의 성문 위 사람 유무 예

〈그림 4〉는 『은중경언해』 말미에 수록된 지옥도의 이본별 비교 예시이다. 도상에서 표현된 성문 위 말을 살펴보면 사람이 말과 함께 있는지의 유무로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지옥도에서 보이는 성벽은 대개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송광사본은 해당 부분을 파내어 하얗게 인출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심원사본보다 앞서 간행된 판본 중 심원사본에서 보이는 특징과 같이 성벽이 검고, 성문 위 사람이 표현되지 않은 판본은 화장사본, 세심사본만이 확인된다. 이 중 세심사본의 경우 화장사본, 심원사본과 대조하였을 때, 도상의 집 기둥이 검게 표현된 부분이 존재하며, 어머니의 복장이 검은 부분, 다른 판본과 쉽게 대조되는 특정한 문양 등이 확인되어 심원사본과 차이점을 보인다.

한편 이호권(2005:70)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화장사본은 앞선 시기 간행된 전주본에 비해 종성의 ‘ㅇ’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특징을 염두해서 전주본의 언해문 중 종성에서 ‘ㅇ’이 아닌 ‘ㅁ’으로 표기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전주본, 화장사본, 심원사본의 ‘ㅇ’ 종성 비교 예

전주본	화장사본	심원사본	위치	화장사본과 일치 여부	전주본	화장사본	심원사본	위치	화장사본과 일치 여부
명느니	명느니	명느니	5b 3		정	정	정	6b 8	
복송와	복송와	복송와	5b 4	×	등ㅎ니	등ㅎ니	등ㅎ니	8a 6	
싱장	싱장	싱장	5b 5		스랑	스랑	스랑	8a 6	×
향ㅎ옛	향ㅎ옛	향ㅎ옛	5b 5		뽕괴디	뽕괴디	뽕괴디	8a 7	
사근장	사근장	사근장	5b 6		스랑	스랑	스랑	8a 8	×
향ㅎ여	향ㅎ여	향ㅎ여	5b 6		등ㅎ니	등ㅎ니	등ㅎ니	8a 8	×
등ㅎ니	등ㅎ니	등ㅎ니	6b 7		정	정	정	8a 8	
오장	오장	오장	6b 7	×	스양	스양	스양	8a 10	

〈표 4〉를 살펴보면 전주본에서 ‘ㅇ’이 종성으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5~8장에 걸쳐져 있다. 16건의 사례 중 전주본과 심원사본이 동일한 부분은 2건에 불과하며, 모두 ‘ㅇ’이 ‘ㅁ’으로 나타나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같은 사례에서 화장사본과 심원사본을 대조하면 11건이 동일하다.²⁶⁾

화장사본과 심원사본을 대조하여 차이나는 5건은 화장사본의 ‘ㅇ’이 심원사본에서 ‘ㅅ’으로 나타난 경우로 모두 화장사본의 ‘ㅇ’이 심원사본에서 ‘ㅅ’으로 판각된 사례이다. 그렇다면 간행 시기가 늦은 심원사본이 화장사본보다 ‘ㅅ’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심원사본에서 종성에서 ‘ㅅ’이 아닌 ‘ㅇ’으로 나타나는 사례는 현재 <표 4>에서 제시한 ‘뉥ㅎ니’ 1건에 불과하다. 물론 落張이 있어 차후 온전한 심원사본이 나타난다면 그 수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현전하는 존경각 소장의 심원사본에 한하여 살펴본다면, 전주본의 오류를 화장사본에서 번각하며 바로잡은 것처럼, 심원사본 간행 당시 바로잡고자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심원사본은 언해문에서 방점 표기가 사라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심원사본 이전부터 각 『은중경언해』의 이본들은 언해문에서 일부 방점이 판각되지 못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심원사본보다 앞선 시기 판각된 이본의 언해문에는 방점이 일부라도 남아있는 반면, 심원사본은 현재 남아있는 본문의 언해문 중 방점 표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다음의 예문으로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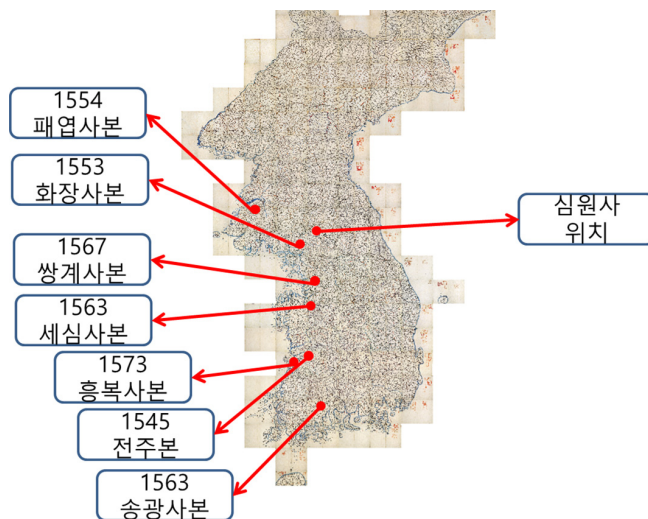
<표 5>의 예문은 『은중경언해』 11b의 언해문이다. 위 예문을 살펴보면 현재 가장 오래된 판본인 전주본의 방점이, 이본마다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심원사본을 제외하면 조금씩이라도 방점이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심원사본은 필자가 확인한 바, 위 예문 외에도 현재 확인되는 언해문에서 방점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종성의 ‘ㅇ’을 ‘ㅅ’으로 교정한 것과 함께 미루어볼 때, 어떠한 인물의 의도가 반영되었으리라 추측된다. 즉, 화장사본을 저본으로 삼되, 종성에서 ‘ㅅ’을 사용하고, 방점은 판각하지 않은 것이 심원사본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江原道 鐵原에 소재한 深源寺는 왜 黃海道 長湍에 소재한 華藏寺의 刊本을 저본으로 삼게 된 것일까? 이는 深源寺의 지리적 위치를 염두할 필요가 있다.

26) <표 4>에서 심원사본과 화장사본이 다른 경우 ‘화장사본과 일치 여부’라는 칸 아래에 ×로 표기해 두었다.

〈표 5〉 심원사본 이전에 판각된 『은증경언해』 이본별 방점 사용 예

은증경 이본	언해문	간행시기	방점유무
전주본	부모의 큰 은더글 스랑티 아니며 공경홀 믋스믈 아니며 은늘 브리며 · 더글 더 · 디고 브효호 ㅁ니라	1545	○
화장사본	부모의 큰 은더글 스랑티 아니며 공경홀 믋스믈 아니며 은늘 브리며 · 더글 더디고 브효호 ㅁ니ㅏ	1553	○
세심사본	부모의 큰 은더글 스랑티 아니며 공경홀 믋스믈 아니며 은늘 브리며 · 더글 더디고 브효호 ㅁ니라	1563	○
송광사본	부모의 큰 은더글 스랑티 아니며 공경홀 믋스믈 아니며 은늘 브리며 더글 더 · 디고 브효호 ㅁ니라	1563	○
패엽사본	부모의 큰 은더글 스랑티 아니며 공경홀 믋스믈 아니며 은늘 브리며 · 더글 더 · 디고 브효호 ㅁ니라	1564	○
쌍계사본	부모의 큰 은더글 스랑티 아니며 고경홀 믋스믈 아니며 은늘 브리며 · 더글 더디고 브효호 ㅁ니라	1567	○
홍복사본	부모의 큰 은더글 스랑티 아니며 공경홀 믋스믈 아니며 은늘 브리며 · 더글 더 · 디고 브효호 ㅁ니라	1573	○
심원사본	부모의 큰 은더글 스랑티 아니며 공경홀 믋스믈 아니며 은늘 브리며 더글 더디고 브효호 ㅁ니라	1577	×



〈그림 4〉 심원사의 위치와 심원사본 이전 『은증경언해』 판각지²⁷⁾

〈그림 4〉를 살펴보면 심원사본 간행 이전 『은중경언해』의 판각지 중 가장 가까운 곳은 황해도 장단의 화장사임을 알 수 있다. 구글맵의 거리 측정을 통해 살펴보면 화장사가 있던 개성의 동북부 지역에서 16세기 심원사가 소재했던 현재의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까지의 거리는 약 35~40km 거리이며, 비교적 낮은 구릉으로 이어진 지역이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 당시 既刊行處 중 가장 가까운 거리 등을 감안하였을 때, 심원사에서 화장사본을 저본으로 『은중경언해』를 판각하기는 용이했을 것이다.

IV. 심원사 간행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의 의의

그렇다면 1577년 심원사에서 간행된 심원사본이 가지는 의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조선 전기 강원도 간행본이 하나 추가된다는 점이다. 그간 심원사의 간행본은 1574년에 간행된 『묘법연화경』 1권에 불과했다. 최경훈(2020a)에 따르면 강원도는 금강산과 설악산에 소재한 사찰을 중심으로 간행이 이루어졌는데, 심원사는 조선 전기 鐵原에서 유일하게 문헌을 판각한 곳이다. 당시 연구에서 심원사 간본은 『묘법연화경』 1종만 확인되나, 심원사본 『은중경언해』를 통해 심원사의 간행이 『묘법연화경』에 이어 한 차례 더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금강산, 설악산 권역 외 경기도와 인접한 강원도 지역에서 지속적인 간행 활동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攷事撮要』에서는 확인할 수 없던 조선 전기 불서가 1종 더 추가되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 전기는 임진왜란을 거치며 책판이 상당수 소실되었기 때문에, 실물을 볼 수 없는 현재 『고사촬요』에 수록된 조선 전기 冊板目錄은 귀중한 기록이다. 그러나 김치우(2007)²⁸⁾에서 이야기된 바와 같이 당시 사찰본은 『고사촬요』에 극소수만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심원사본의 간기는 조선 전기 강원도 철원 심원사에 『은중경언해』 책판이 소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된다.

27) 지도는 규장각 소장인 〈大東輿地圖〉이며, 각 지역의 위치는 한국학자료센터에서 제공되는 〈東輿圖〉를 통해 확인하였다.

28) 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7, 109면.

무엇보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심원사본은 현재까지 확인된 강원도 간행 『은중경언해』 중 가장 앞선 시기의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알려진 『은중경언해』의 이본 중 강원도 간행본은 1658년 신흥사에서 간행된 판본이 가장 오래된 것이었다. 그러나 심원사본을 통해 삼남지역, 경기도 외 강원도에서도 조선 전기에 이미 『은중경언해』를 간행하였음을 서술할 수 있다. 특히 금강산의 표훈사에서 1557년 한문본 『은중경』이 간행된 점을 감안하면, 조선 전기 강원도라는 지역 안에서 『은중경』의 한문본과 언해본이 모두 갖추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그동안 알려진 『은중경언해』 판본을 정리한 各道의 언해본 간행 현황이다.

〈표 6〉 조선시대 各道別 『恩重經諺解』 刊行 현황²⁹⁾

지역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간행 시기 주체	1577심원사 1658신흥사 1692건봉사	1553화장사 1687불암사 1717용천사 1796용주사	1582보리사 1592희방사 1609동화사 1648통도사 1668고방사 1680수암사 1686조계암 1686천룡사	1545전주본 1563송광사 1573홍복사 1580징광사 1628백암사 [1635]최연 1651봉서사 1653내장사 1676영자암 1720금산사 1760문수사 1760벽송대 1794남고사 *1801남고사 1806안심사	1563신심사 1567쌍계사 1583소마사 1618율사	1689조원암 1705용장사 1710년경, 화장사	1731진정사 1766만경암	1564패엽사
총수	3	4	8	14	4	3	2	1

* 남고사 간행의 1794년, 1801년 간본은 합쳐서 1종으로 계산하였음. 각주 참조.

29) 표의 형식은 송일기·박민희(2010:216)에서 차용하였다. 내용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11); 송일기·박민희(2010:216); 정은영(2020); 박철민(2020)을 참조하여 보완하였으며, 1910년도 이후 간본은 배제하였다. 1717년 개성 용천사본은 송일기·박민희(2010)에서 황해도에 배치하였으나, 당시 개성은 경기도였으므로 경기도로 옮겼다. 이외에도 1794년, 1801년 남고사 간행본은 동일한 전주 남고사인 점, 7년의 시간 밖에 차이하지 않는 점을 보아 우선 잠정적으로 간기만 다른 동일한 판으로 간주하여 2건을 1종으로 보았다. 1912년 姜在禧 간본, 1925년 權相老 간본을 포함하면 간행 시기와 주체가 알려진 『은중경언해』는 현재까지 총 41종이며, 이의 간기 미상의 판본은 최소 3종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그간 알려지지 않은 1577年(선조 10) 鐵原 深源寺 刊行의 『恩重經諺解』를 소개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늦어도 羅末麗初 시기에는 전래되었으리라 여겨지는 『恩重經』은 조선시대에 와서 수십 차례 간행이 이루어진다. 언해본 또한 40종이 넘게 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심원사본 『은중경언해』는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이 유일본으로 확인되며, 강원도에서 간행된 『은중경언해』의 현전 이본 중 가장 앞선 자료이다. 특히, 심원사본을 통하여 강원도에서는 조선 전기부터 『은중경언해』가 간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심원사는 647년(신라 진덕여왕 원년) 처음 창건된 뒤, 여러 번 全燒되고 重創되기를 반복하였다. 현재에 들어서는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두 곳에 소재하고 있다. 심원사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이는 『은중경언해』의 책판은 임진왜란 당시 심원사가 전소되었을 때 같이 소실되었으리라 여겨진다.

본고에서 소개한 1577년 심원사본 『은중경언해』는 본문과 도상의 특징, 간행 시기 등을 보아 京畿道 長湍(현 황해도 소재)의 華藏寺에서 간행된 1553년 華藏寺本을 저본으로 변각한 것이며, 저본에서 종성의 ‘ㅇ’이 없는 부분은 교열하여 간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심원사에서 화장사본을 저본으로 삼게 된 계기는 당시 간행된 『은중경언해』 간행처 중 화장사가 거리상 가깝고, 지리적으로도 장애가 될만한 높은 산맥이 없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심원사본 『은중경언해』는 『고사촬요』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조선 전기 강원도 사찰본의 책판 소장처와 당시 철원 지역의 간행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외에도 본고에서는 그간 화봉문고 소장본이 유일본으로 알려졌던 전주본이 미국 뉴욕공공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음을 소개하였으며, 기존 선행연구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1583년 槐山 小馬寺 간행의 『은중경언해』를 포함하여 현재 총 44종의 『은중경언해』 판본을 말미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소개한 심원사본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나, 존경각 소장본은 제12~15장, 제17~20장이 落張된 缺落本이다. 차후 『은중경』의 이본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불완전한 심원사본의 본문이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大東輿地圖〉

『東溟集』

〈東輿圖〉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전주본, 화장사본, 패엽사본, 흥복사본, 심원사본 등)

『於于集』

『鐵原郡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10964)

『太宗實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주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1

한국학문헌연구소, 『乾鳳寺本末事蹟·榆岾寺本末寺誌』, 아세아문화사, 1977

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7

김기엽, 「판본의 異文을 통해 본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문헌학적 특징」, 『한문학논집』 58, 근역한문학회, 2021

김상호, 「朝鮮朝 寺刹板 刻手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0

김자현, 「『父母恩重經』의 변천과 圖像의 형성과정 연구」, 『불교미술사학』 18, 불교미술사학회, 2014

남경란, 「세심사판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의 국어학적 특징과 의의」, 『인문과학연구』 37,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박도화, 「諺解本 〈佛說大報父母恩重經〉 版畫의 圖像의 淵源과 意義」, 『불교문화연구』 6, 한국 불교문화학회, 2005

_____, 「16·17세기 경전 간행의 양상과 변상도의 특징」, 『한국불교사연구』 14, 한국불교사 연구소, 2018

박철민, 「1766년 咸鏡北道 會寧府 萬景菴 刊行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에 대하여」, 『서지학연구』 83, 한국서지학회, 2020

손성필, 「16世紀 朝鮮의 佛書 刊行」,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7

송일기, 「『父母恩重經』 韓·中 板本考」, 『한중인문학연구』 5, 중한인문과학연구회, 2000

_____, 「佛說大報父母恩重經: 諺解의 初譯本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22, 한국서지학회, 2001

_____, 「鷄龍山 岬寺 所藏의 〈父母恩重經諺解〉 雙溪寺 經板」, 『불교문화연구』 6, 한국불교문화학회, 2005

송일기·박민희, 「새로 발견된 湖南板〈父母恩重經諺解〉 4종의 書誌的 研究」, 『한국도서관·정

- 보학회지』 4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0
- 송일기·유재균, 「韓國本 『父母恩重經:諺解·한글』의 板本 및 한글서체에 관한 研究」, 『도서관』 55-2(통권 355), 국립중앙도서관, 2000
- 윤진원, 「朝鮮時代 父母恩重經 開版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8
- 이경희, 「〈父母恩重經諺解〉 異本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06이태호, 「朝鮮時代 木版本 『父母恩重經』의 變相圖 板畫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19, 한국서지학회, 2000
- 이호권, 「父母恩重經諺解의 異本에 대한 研究」,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4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2005
- 이화숙, 「조선시대 간인본 국역불서의 서지적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11
- 정은영, 「보현사판 『부모은중경언해』의 서지 및 국어학적 특징」, 『민족문화논총』 7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0
- 조순향, 「韓國版父母恩重經研究」,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76
- 최경훈, 「강원도 지역 사찰 간행 불서에 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84, 한국서지학회, 2020a
- _____, 「조선시대 강원도 지역의 목판 인쇄 문화 연구」, 『강원사학』 34, 한국서지학회, 2020b
- 최송이, 「『부모은중경』의 언해본 비교 고찰」,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3
- 최영희, 「조선시대 부모은중경 한글판본 서체의 조형적 특징 연구」, 『동양예술』 34, 한국동양예술학회, 2017

두산백과(<https://www.doopedia.co.kr/>)

디지털철원문화대전(<http://cheorwon.grandculture.net>)

문화재청(<https://www.cha.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성균관대학교 존경각(<https://east.skku.edu>)

연천군(<https://www.yeoncheon.go.kr/>)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한국학자료센터(<https://kostma.aks.ac.kr/>)

BTN뉴스(<https://m.btnnews.tv>)

미국 뉴욕공공도서관(<https://digitalcollections.nypl.org/>)

The Source Text and Characteristics of *Bulseol Daebo Bumo Eunjunggyeong (Eonhae)* Published in 1577 at Simwonsa Temple, Cheorwon

Park, Cheol-min

This study examined the source text and characteristics of *Bulseol daebo bumo eunjunggyeong (eonhae)*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 Sakyamuni's Teaching on Parental Love (Korean annotation)] (hereinafter *Eunjunggyeong eonhae*) published in 1577 (10th year of King Seonjo's reign) at Simwonsa Temple in Cheorwon. While 42 editions of *Eunjunggyeong eonhae* were known meanwhile, a total of its 44 editions have been confirmed by this study. Of the two newly added editions, a volume owned by Jon-gyeonggak, Sungkyunkwan University is the only extant volume of *Eunjunggyeong eonhae* published at Simwonsa Temple in Cheorwon (hereinafter Simwonsa Temple edition).

As for the Simwonsa Temple edition housed by Jon-gyeonggak,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eriod and location of its publication can be easily identified because *yeonhwajil* (緣化秩, a list of involved individuals) and *gan-gi* (刊記, colophon) have been preserved relatively intact, though Chapters 12~13 and Chapters 17~20 are missing. From them, it is confirmed that the Simwonsa Temple edition is one edition of *Eunjunggyeong eonhae* published in Gangwon-do during the era of the Joseon Dynasty, and is the oldest edition published in Gangwon-do. Although *Edition stored* (留板) is written at the end of the *gan-gi* (colophon) of the Simwonsa Temple edition, it is presumed that the Simwonsa Temple edition was published at Simwonsa Temple, considering that *Saddharmapundarika Sutra* (妙法蓮華經, The Lotus Sutra) was published at Simwonsa Temple three years before the publication of the Simwonsa Temple edition.

In view of its text and the characteristics of its iconography, it is presumed that the source text of the Simwonsa Temple edition was the Hwajangsa Temple edition published in 1553, and the Simwonsa Temple edition is characterized by the trace of correcting

‘ㅇ’ in the final consonant placed under a vowel. It is deemed that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lso had some effects on the reason why the Simwonsa Temple used the Hwajangsa Temple edition as the source text. Besides introducing the Simwonsa Temple edition, this study also introduces new locations that house the Jeonju edition and the Heungboksa Temple edition, and summarizes the editions of *Eunjunggyeong eonhae* identified until now, with adding the 1583 edition of *Eunjunggyeong eonhae* published at Somasa Temple, Goesan.

Key Words : Eunjunggyeong-Eonhae (恩重經諺解), Source text, Simwonsa Temple, Buddhist temple edition(寺刹板), The Early Joseon Dynasty (朝鮮 前期).

